

■ 논문 ■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최강화 · 오병섭

I. 머리말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한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거주 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과 같은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한다¹⁾. 최근 들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인 이주와 이민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스티븐 카슬(Stephen Castles)과 마크 J. 밀러(Mark J. Miller)는 현 시대를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 정의²⁾하고, 이러한 국가 간 이주와 이민은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재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인구의 국가 간 이주와 이동이 빈번하면서, 이주와 관련한 문제들은 송출국(이주 유출국)과 거주국(이주 유입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주자 증감에 따른 송출국 및 거주국 내부에서의 복잡 다양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 1) 윌리엄 스윙 IOM 사무총장은 ‘이주는 21세기 메가트렌드’란 말을 즐겨 쓴다.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주자의 수는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주(migration)는 지난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막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이다(<http://iom.or.kr>).
- 2)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P.25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주 변동은 거주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주 변동은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문화 정체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한 양날의 검과 같다. 따라서 이주 변동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주 변동이 야기하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동 현상으로 인해 이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³⁾. 한국은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제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민간기구들은 다양한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의 현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반면에 이러한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나 인권 문제와 같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의 질’이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주 환경 그리고 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등과 같이 ‘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과 같은 총체적인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들은 현재 급격한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양적 성장에 발맞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삶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이주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무엇이고,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주민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이주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종속 변인인 이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주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주

3)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2015-06, 한국노동연구원(2015).

변동을 통해 야기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학제간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단선적 사고에 기초한 개별 분야의 정책 방안 제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이주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인과관계나 요인 상호간의 연관성과 의존성을 간과한 부분적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정책 방안들은 장기적이면서 전체적 사고에 기반을 둔 학제 간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주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첫째, 이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를 이주 거주국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민들이 이주 거주국에서 인지하는 ‘노동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인과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변동이 가져오는 인과지도를 토대로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내부 피드백 메커니즘(internal feedback mechanism)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의 변동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 변인들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개별 정책 변수들의 변동에 따른 유량 변수로써 이주 전환율과 저량 변수로써 총 인구 변동과 간의 다양한 변인들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주 및 이민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 입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글로벌 이주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이주에 대한 학문적 접근

지난 20여 년간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주에 대한 국내 학계 및 정책 관련 논의들이 점점 더 부각되어 있다. 기존의 신고전주의는 인구이동은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자신의 노동 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고전주의의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비롯된 ‘배출(push)-흡인(pull) 이론’은 송출국에서의 인구 배출요인, 유입국의 인구 흡입요인과 개인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의 이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박시내, 2017).

국제 이주 및 인력이동을 분석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강동관(2017)의 연구와 이규용 외(2015)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강동관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인력 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인적 자본 요인과 환경 조성 및 제도적 요인, 그리고 국가별 특성 요인들이 국가 간 고급인력의 이주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규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은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수요 요인에 의한 이민자 변동을 측정하였다. 특히, 이민자의 유입은 대부분 유입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입국의 경제성장률, 유입국의 고령화 정도, 생산가능인구 규모, 소득분배 구조, 임금격차, 실업률 등의 제반 환경 요인이 이민자들의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제 이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마이클 새머스(Michael Samers, 2013)는 국제 이주의 원인을 다음의 <표 1>와 같이 크게 10개의 이론라벤스타인의 법칙과 배출-흡인 이론,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 행태주의, 신경제적 접근, 이중 노동시장/분절적 접근,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구조주의 접근, 사회 네트워크 이론, 초국가주의, 젠더를 고려한 접근, 그리고 구조화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의 Westmore(2014)의 연구에서는 국가간 인력이동의 원인을 유출국과 유입국 간의 임금격차, 숙련수준, 이주비용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패널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주 이론	주요 내용	
1. 라벤스타인의 법칙과 배출-흡인 이론	배출-흡인 요인에 바탕을 둔 국내/국제 이동 경험적 이주패턴과 과정에 대한 7개 법칙 제시	
2.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가난한 국가와 선진국 사이의 이주 이주자를 송출국과 이입국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완벽한' 또는 '다양한' 정보에 반응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간주	
3. 행태주의	합리적 인식에 토대한 '만족' 행위와 장소 효용을 고려한 개인의 이주 행태와 국내 이주 이주의 이유뿐만 아니라 장소 효용에 대해서도 주목	
4. 신경제적 접근	개인 차원보다 집단적·결합적 의사결정 단위로서 가족을 중시 가난한 국가와 선진국 사이의 이주	
5. 이중 노동시장/ 분절적 접근	고용 원칙에 따른 노동 시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송출국가에서의 '배출 요인'보다는 선진국의 이중 노동시장이 가지는 '흡인 요인'의 중요성을 더 강조	
6. 구조주의 접근	종속(집합) 이론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이주에 대한 영향력
	글로벌화	이주의 글로벌 흐름, 구조적 제약, 기회(교통·통신·수단의 혁신)의 영향력(자본·상품·서비스·정보·사람의 흐름과 각 요소들의 네트워크 강조)
	글로벌화 도시	글로벌 도시로의 이주에 초점 거대 도시의 글로벌 역동성과 다양성의 개발로 글로벌 경제의 효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롤백(roll-back)'과 '롤포워드(roll-forward)'와 관련된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이주에 대한 효과 국제적 학생 이동성
	이주개발 연계	송출/이입 국가(혹은 지역)간 관계, 특히 송금의 효과 이주와 개발 사이의 관계에 관심

7. 사회 네트워크 이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 지역(마을), 가족, 개인의 행동 이주자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 중재 이주에 초점
8. 초국가주의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주자 연계 혹은 디아스포라 연계 이주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문화계승자로서의 역할에 관심
9. 젠더를 고려한 접근	다양한 이주 관계, 특히 여성 이주자와 젠더 관계, 가사 노동과 가족 관계에 초점
10. 구조화 이론	잠재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이주

<표 1> 이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본적인 특성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의 이주를 결정하는 다양한 내재적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피드백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는 전 지구적 통합과정에서 사람들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대규모 이동은 발생된다.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수반하여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은 발생되며, 교통의 발달 과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거리의 개념이 소멸하면서 국제 이주 및 이민은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주와 이민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보편 타당한 사회 현상으로 이러한 이주 변화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이주(Migration)는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이주용어사전, 제 2판).

4) 마이클 새머스,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역, 『이주(Migration)』 (서울: 푸른길, 2013), 160쪽. 본 저자가 일부 수정함.

기존의 이민자들의 거주국 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출생국에서 새로운 거주국으로의 이주를 통한 기대소득의 증대, 거주국 이민 정책의 호혜성, 기존에 진출한 이민자 집단, 출생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적 동질성, 이민에 따른 비용 등이 이민자들의 거주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상화, 2016). 즉, 출생국보다 거주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거주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 및 이주민들에게 보다 호혜적이며, 기존에 특정 거주국에 자국의 이민자가 이미 많이 나가 있어 이민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문화의 유사성이 높고 이주 및 이민에 따른 제반 비용이 낮을수록 이주자들은 거주국으로의 유입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스티븐 카슬과 마크 밀러는 현 시대의 이주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의 이주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주 경향은 크게 이주의 전 지구화, 이주의 가속화, 이주의 차별화,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정치화 그리고 이주변천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⁵⁾.

5) 이주의 전 지구화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주 흐름에 의해 동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민 유입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국가에서 온 다양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주의 가속화는 현재 거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국제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주의 양적 팽창은 정부 정책의 시급성과 어려움을 심화했다. 정부 정책은 국제이주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주자를 송환시킬 수도 있다. 이주의 차별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이주, 난민이주, 영주이주 등과 같은 이주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유형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주의 차별화는 국내 및 국제 정책 수립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이주와 난민이동은 남성이 주도했고, 여성은 단지 가족 재결합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여성은 노동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다양한 이주 유형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일부 연결망에서도 그리고 일부 난민이동에서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주의 정치화는 국내정치, 양국관계, 지역관계,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안보정책이 국제이주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물론, 유입국과 경유국, 그리고 송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변천의 확산은 전통적인 이민 송출국이 경유국이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폴란드, 스페인,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주변천의 다양한 단계를 겪고 있다. 출처: 스티븐 카슬, 『이주의 시대』, 38-39쪽. 본 저자가 일부 수정함.

인구이동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불리한 환경에서 떠나 보다 유리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혹은 송출국가와 목적지 또는 유입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상화, 2016).

유엔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은 이주의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국가 행정적 요인, 분쟁, 다국가적 네트워크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⁶⁾. 첫째, 경제적 요인은 국가별로 점점 벌어져가는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는 이주자들을 거주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pull-factor)을 하는 것이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은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과 관련한 인구의 이동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은 지진이나 산업재해,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해서도 이주가 발생하는 데, 환경적 요소로 인해 일어나는 이주는 주로 국내 이주가 많다. 넷째, 국가행정적 요인은 빈약한 정부, 부패, 그리고 좋은 교육체제와 건강 관련 시설의 부재는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분쟁 요인은 내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이나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소망에 따른 이주를 말한다. 여섯째, 다국가적 네트워크 효과는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이주과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역할을 하며 이주를 촉진하게 된다.

Bansak et al.(2015)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국제 이주의 원인을 배출-흡인 이론에 기인하여 크게 경제적/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주민 송출국과 거주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배출(Push) 요인	흡인(Pull) 요인
--	-------------	-------------

6) <http://iom.or.kr/index.php>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경제적/ 인구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Poverty) • 실업(Unemployment) • 저임금(Low wages) • 높은 출산율(High fertility rates) • 기본적인 보건 및 교육 부재(Lack of basic health an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임금 전망 (Prospects of higher wages) •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기대 (Potential for improved standard of living) • 개인적 또는 직업적 개발 (Personal or professional development)
정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갈등, 폭력(Political Conflict, insecurity, violence) • 열악한 통치(Poor governance) • 부패(Corruption) • 인권남용(Human rights ab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보장(Safety and security) •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사회적/ 문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성, 종교 등에 의한 차별 (Discrimination based on ethnicity, gender, religion, and the li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 동일 민족집단(Ethnic(diaspora migration) homeland) • 차별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rimination)

〈표 2〉 이주 이민의 배출-흡인(Push/Pull) 요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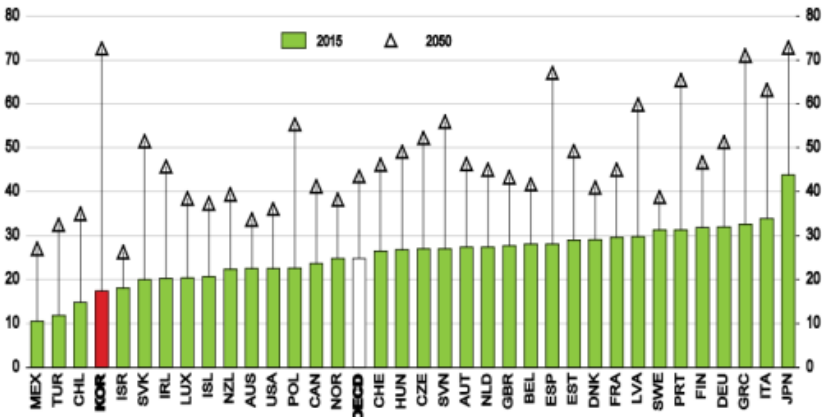
송출국과 수용국은 경제적/인구학적 측면과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유로 인하여 이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송출국의 가난이나 실업, 저임금, 높은 출산율과 기본적인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의 부재 등과 같은 경제적/인구학적 이유와 송출국의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 부패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민족, 성, 종교 등에 의한 차별로 인하여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용국은 고임금이나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개인적 또는 직업적 개발 등의 경제적 이유와 안전과 보장 그리고 정치적 자유, 그리고 가족 재결합이나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의 사회/문화적 이유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Ⅲ. 글로벌 이주의 인과구조

7) Bansak, C., N. Simpson, and M. Zavodny,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Oxford: Routledge, 2015).

1. 이주민의 증가 추세

OECD 국가들의 ‘인구통계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15~64세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약 17% 정도로 OECD 평균인 약 25% 보다 낮은 편이나, 2050년에는 그리스, 일본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으로 향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⁸⁾

8) 출처: OECD 인구통계와 인구(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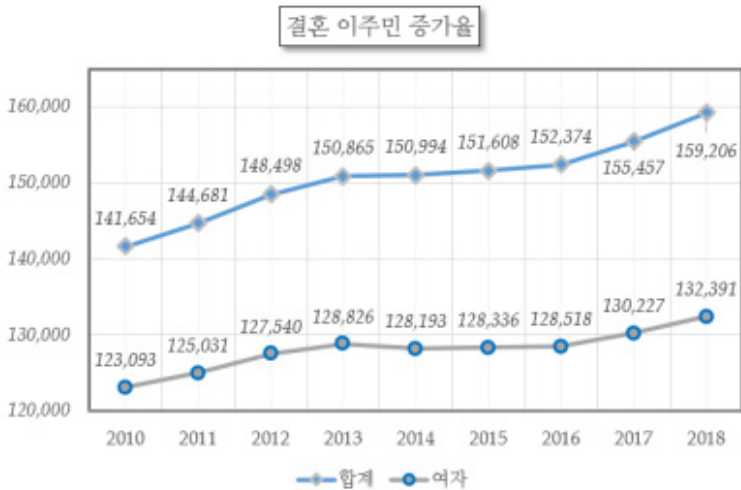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이와 같이 저출산과 기대수명 개선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국내 생산가능 인구수를 감소시켜 향후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인구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이주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해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 확대를 통한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 이주민의 추이변동을 측정한 <표 3>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약 1.8배의 국제 이주민이 늘어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244,200명에서 2019년에 1,163,700명으로 약 4.76배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국제 이주민의 비율은 2000년에 0.5%에서 2009년에 2.3%로 약 4.6배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폭은 서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매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 이주민들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한국의 이주민 변동의 결과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이주민 유입정책들을 통해 이주민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활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이주민(천명)		전체 인구 대비 국제 이주민 비율		나이별 국제 이주민 구성 비율		
	2000년	2019년	2000년	2019년	0~19	20~64	65+
아시아(전체)	10,506.2	18,296.6	0.5	0.8	13.3	77.4	9.2
서아시아	5,393.0	8,105.8	0.4	0.5	10.0	75.3	14.7
중국	508.0	1,030.9	0.0	0.1	23.1	68.0	8.8
중국, 홍콩	2,669.1	2,942.3	40.4	39.6	6.1	66.8	27.0
중국, 마카오	240.8	399.6	56.3	62.4	7.3	78.6	14.1
북한	36.2	49.4	0.2	0.2	11.5	78.8	9.7
일본	1,686.4	2,498.9	1.3	2.0	11.2	80.5	8.3
몽골	8.2	21.1	0.3	0.7	19.0	76.3	4.6
한국	244.2	1,163.7	0.5	2.3	6.4	90.9	2.7

<표 3> 아시아 지역의 국제 이주민의 변동 추이⁹⁾

또한, <그림 2>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보를 살펴보면, 결혼 이주민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결혼 이주민의 증가는 전체 이주민의 증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는 2010년에 141,654명에서 2018년에는 159,206명으로 지난 9년 간 약 12.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는 2014년의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와 같은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로 약 5.44%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이주민의 증가에 발맞춰, 최근에는 결혼 이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9)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ternational migrants as a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2019. 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

<그림 2> 결혼이주민 증가율추세(단위: 명)¹⁰⁾

2. 한국의 이주 변동에 대한 인과 구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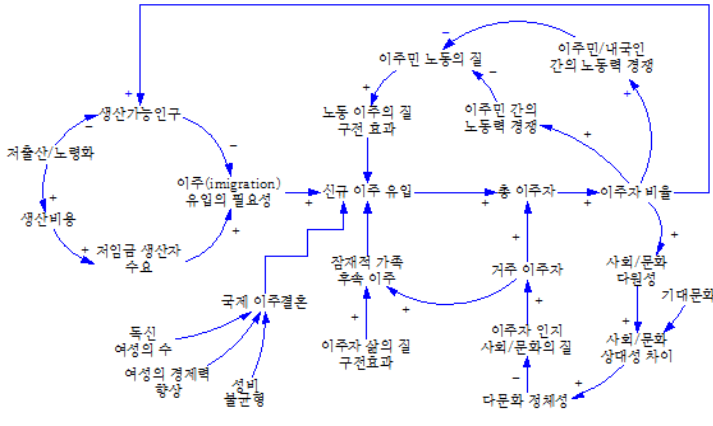
한국의 이주 변동에 대한 인과구조를 분석한 <그림 3>을 살펴보면,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내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와 더불어 생산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생산비용 증가는 저임금 생산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저임금 생산자 수요의 증가는 필요한 대체 인력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 노동력의 국내 유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누적된 국내 노동력 부족문제는 신규 이주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제 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방안(2010)에 의하면, 최근에 독신 여성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결혼의 연기 그리고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인 신부의 수입수요를 높이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제 이주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 이주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의 신규 이주민 유입은 증가하게 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신규 이주유입이 증가하면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주자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주자 비율 증가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첫 번째로 경제적 목적의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들 간의 노동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유입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저임금 중심의 노동시장에 노동공급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다(조경엽, 강동관, 2014). 그러나,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시킬 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게 되어 근로 조건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의 2018년 취업 비자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백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 서비스 및 농(어)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국내 노동자들과 노동 시장에서 경쟁

10)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에 있다.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들 간에도 노동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동력 시장에서의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의 대체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단순한 직무위주의 직종에 근무하는 등의 상당히 열악한 노동 환경을 처해 있다. 따라서 이주자의 노동의 질에 대한 정보는 잠재적 이주 예정자들에게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구전되고, 잠재적 이주자의 경제적 목적의 이주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국내 이주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들의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자 유인 정책은 과거에 단순히 양적으로 노동력을 수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 인력의 유입과 이주 노동자의 노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주자 유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주자 비율의 증가는 이주국의 문화 다원성을 증가시킨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화적 다원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다원성은 거주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풍성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문화사회의 전환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한국의 단일화된 주류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궁극적으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는 고유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이주민들의 이중문화 정체성 혼돈이라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자가 인지하는 사회/문화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본국으로의 귀환이나 제 3의 타국가로의 진출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잠재적 신규 이주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총 이주자를 감소시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사회/문화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방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키우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림 3> 국제 이주유입에 대한 인과지도

3. 이주 변동에 대한 동태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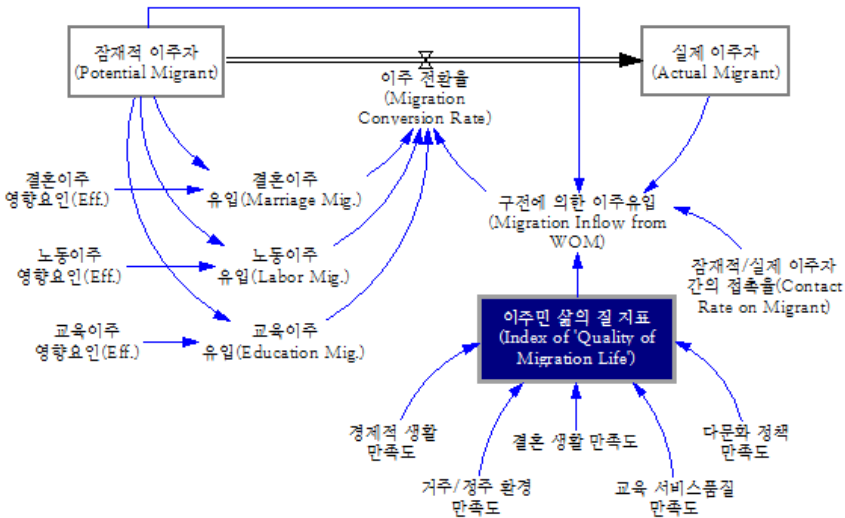
현재 국내의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지속적 증가 추세는 다양한 외부 요인과 국가의 정책적 운영방안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잠재적 이주자(potential migrant)의 실제 이주자(actual migrant)로의 이주 전환율(migration conversion rate)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이주 촉진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즉 이주 전환율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입 요인으로는 결혼 이주 유입(inflow from marriage migration)과 노동(inflow from labor migration) 이주 유입 그리고 교육(inflow from education migration) 이주 유입이 대부분이다¹¹⁾. 기존의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낮은 소득에서

11) 노동이주(labor migration)는 주로 경제적 목적의 이주로서, 대부분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임금이 높은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특징이 있다.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주로서, 다른 국가의 배우자를

높은 소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노동 목적의 이주 유입은 국제 이주의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 효과 이외에 간접적으로 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이주자와 잠재적 이주자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전에 의한 이주율 변동(migration inflow from word-of-mouth)이다. 즉 기존의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이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migration life)’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삶의 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잠재적 이주자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구전을 전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전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구전에 의한 이주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 구전은 잠재적 이주자의 이주 전환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삶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국의 환경 요인으로는 이주국에서의 경제적

맞아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다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이주(education migration)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그림 4>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이주 전환율 변화의 다이내믹스 모형

국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 유학가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이용균, 『글로벌 이주: 이동 관계 주변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생활 만족도, 이주국에서의 거주/정주 환경 만족도, 결혼 생활의 만족도, 이주국의 교육 서비스품질 만족도 그리고 이주국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 등이 ‘이주민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국제 이주에서는 주로 직접적 요인에 의한 이주민 유입이 많았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국제 이주민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는 노동이나 결혼, 유학 등의 직접적 요인에 의한 이주민 유입보다는 기존의 이주 유입민들에 의한 간접적 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잠재적 이주자와 실제 이주자 간의 접촉을 통한 이주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가족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이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경제적 생활 만족도, 거주/정부 환경 만족도, 결혼 생활 만족도, 교육 서비스품질 만족도, 그리고 다문화 정책 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주민의 삶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IV.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주 정책은 크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관리하는 유입정책과 유입된 이주민을 거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편입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편입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창원, 2017). 이러한 유입정책 및 편입정책은 <그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들의 이주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유입정책과 이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편입정책으로 구성된다.

우선 국내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기존의 이주민의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에서 ‘질 높은 사회통합’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은 주로 내국의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단순 노무직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러한 단순 노무직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단순 기능위주의 인력을 숙련 기능위주의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주민의 노동의 질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단순 기능인력 위주의 이주 정책에서 우수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력구조 변화나 산업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조경엽, 강동관, 2014; 이선호 외, 2014).

한편, 유입된 이주자를 거주국에서 어떻게 편입하여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편입정책으로, Castles와 Miller의 사회통합유형에서는 이주자 편입 방식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차별적 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차별적 배제 모형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
정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 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 존중과 관용
평등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한 권리의 허용
정주화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 원칙	숙인주의, 엄격한 조건	숙지주의, 용이한 조건	숙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사례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표 4〉 Castles와 Miller의 사회통합유형¹²⁾

차별적 배제 모형은 거주 국가 또는 거주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이민자들의 영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주 국민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수 인종이나 민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이고, 동화주의 모형은 주류 문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거주 국가 내의 소수 이민자들이 거주국에 흡수되고 동화되어 거주국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다. 또한, 다문화주의 모형은 주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집단 간의 상호존중 질서가 정착되도록 다양성 인정을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모형으로, 이주민들의 언어, 민족/인종, 종교,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 통합성과 단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은 국가가 처해있는 현실적 조건이나 역사적 또는 문화적 맥락에 기초하여 그 국가에 적합한 최적의 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향후 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이나 지향점에 기반하여 최적의 사회통합 모형의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V. 맺음말

이주 및 인구이동은 인구학과 이민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혼인

12) 출처: Kymlicka(1995); Castles & Miller(2003); 박진경(2010): p.45; 문병기 외(2015): p.14에서 재인용

시장의 인구학적 불균형 현상 등은 우리사회가 향후 더 많은 외국인 유입을 필요로 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이상림, 2011). 특히,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주 및 이민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적제 중의 하나이며,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적인 이주 및 이민 관련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이주 및 이민은 매우 빠르고 복잡한 구조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및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관련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유입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인과 구조를 도출하고, 이러한 이주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다단계 인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인과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즉 경제적 이득의 정도나 이주민의 정주 환경, 이주민의 결혼생활 만족도, 유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방안은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이주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조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국내 노동 시장의 변화와 사회문화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유입을 촉진하고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이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이주관련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 구조분석은 향후 우리사회가 경험하게 될 이주민 정책들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정책 등 종합적인 이주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인과 구조뿐만 아니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별 변수들에 대한 정책적 민감도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기존 연구들은 이주 및 이민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와 각 변인들 간의 민감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의 측정을 통해 어떠한 이주 및 이민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다른 변수들 간의 어떤 상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경영학부 교수, khchoi@hansung.ac.kr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조교수, bosoh@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이주(migration), 이주민(migrant),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 삶의 질(quality of life),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투고일: 2020.04.09, 심사일: 2020.05.03, 게재확정일: 2020.05.06.)

<국문초록>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최강화 · 오병섭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인 이주와 이민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동 현상으로 인해 해외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이주민을 양적으로 늘리는 이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러한 이주민의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정책 방안들은 장기적이면서 전체적인 사고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주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인지하는 ‘노동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Abstract>

A System Thinking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Choi Kanghwa · Oh Byoungsub

In nowadays globalized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a reality for almost all corners of the glob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demographic fluctuations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Korea has carried out a migration policy to quantitatively increase overseas migrants as a way to replace the insufficient workforce and to resolve gender imbalances. However, these migration policies has some limitations in improving qualitative growth accompanied by quantitative growth of migrants. Migration-related policies require a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ocusing on the flow of migr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migration, this study suggests a causal loop diagram for international migration that can view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various social phenomena caused by migration. In particular, we derive strategic variabl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migrants, including 'quality of labor' and 'quality of society/culture' recognized by migrants, and present a reciprocal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these strategic variabl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 strategic migration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near thinking related to previous migration literatures and to solve the migration problem more systematicall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제이주기구, 『이주 용어 사전』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11).

마이클 새머스,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옥, 이종희 역, 『이주 (Migration)』 (서울: 푸른길, 2013).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이용균, 『글로벌 이주: 이동 관계 주변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Bansak, C., N. Simpson, and M. Zavodny,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Oxford: Routledge, 2015).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20*

2. 논문

문병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의무화: 논리적 정당성 및 경험적 증거」, 『이민과 통합』, 제1권 1호(2017).

박시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연구』, 제22권 1호 (2017).

이선호, 강동관, 황진영,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 지역연구』, 제23권 2호(2014).

이정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실천과 주체성 형성」, 『기업과 전망』, 제36호(2007).

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제 1권(2017).

황갑진,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사회과교육연구』,

제22권 3호(2015).

David Bartram, “International Migration, Open Borders Debates, and Happines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2(2010), pp. 339361.

Hein de Haas, “The Internal Dynamics of Migration Processes: A Theoretical Inquir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0(2010), pp. 1587-1617.

Lars Mosterd, Bart Hutten, “How to cope with the European migrant crisis? Exploring the effects of the migrant influx in Bayern, Germany.” Corpus ID: 209375312(2016), www.systemdynamics.org/assets/conferences/2016.

3. 연구/정책 보고서

김유경,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 『다문화 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강동관, 『이민이 수용국가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701(2017).

문병기, 라희문, 한승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877-01, 법무부 연구보고서(2015).

신상화,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현안분석, 제정포럼(2016).

신지원, 『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방향성 연구』, 워킹페이퍼 No.2011-01, IOM 이민정책연구원(2011).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2015-06, 한국노동연구원(2015).

이상립, 『이주와 인구: 인구학적 관점의 설명』,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102(2011).

이은경, 황현숙,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2016-07, 희망제작소(2016).

임정덕,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보고서

- 2011-3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 정기선, 이선미, 김석호, 이상립, 박성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연구보고서 시리즈 No.2010-06,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 조경엽, 강동관,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14-21, 한국경제연구원(2015).
- 주성훈,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상현안분석 제 38호, 국회예산정책처(2010).
- 하중범,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용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2012).
- Westmore, Ben, “International Migration: The Relationship with Economic and Policy Factors in the Home and Destination Countr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14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z123h8nd71-en>(2014).

4. 웹사이트

- <http://iom.or.kr/index.php> (검색일: 2020년 3월 25일)
- <https://data.oecd.org/pop/population.htm>(OECD 인구통계와 인구) (검색일: 2020년 3월 25일)
-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검색일: 2020년 3월 25일)
-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International migrants as a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검색일: 2020년 3월 25일)